포스코그룹

中 CATL와 3년간 리튬 장기공급 계약

포스코그룹이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을 장기 고객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리튬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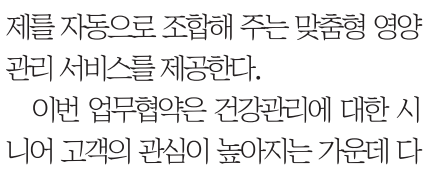
포스코그룹은 중국CATL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계약에 따른 공급이 진행 중이다.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사업에서 축적한 원료 확보·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리튬사업을 확대해왔다. 우량 리튬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 내 판매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우량 자원 선제 확보와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 리튬 생산 역량과 판매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식에서 김명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대표(왼쪽)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라솔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시니어 고객 맞춤형 영양제 관리 서비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AI 헬스케어 기업 '알고케어'와 손잡고 시니어 고객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18일 코웨이라이프솔루션에 따르면 업무협약을 맺은 알고케어는 AI와 IoT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개인별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영양제를 추천하고 전용 기기를 통해 매일 필요한 영양제를 자동으로 조합해 주는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관리에 대한 시니어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영양제 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과 섭취 방법을 선택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코라솔은 알고케어의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를 멤버십에 연계해 주요 고객층인 시니어 세대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혜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코라솔 고객은 알고케어 E1 PRO 렌탈 패키지 이용 시 알고케어가 제공하는 렌탈료 할인과 영양제 포인트 뿐만 아니라 멤버십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휴 혜택은 코웨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부 혜택과 이용 방법은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공식 사이트와 코웨이닷컴 내 '코웨이 멤버스 클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혁신 中企 매출 1000조·수출 100조 목표"

〈2030년까지〉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대전' 개막
수출 1조弗 달성에도 구조적 위기
내년 中企 R&D 예산 2.5조 확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 혁신 대전'에서 참석자들과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들이 2030년까지 매출 1000조원,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신규 채용도 20만명을 목표했다.

10월말 기준 이노비즈(INNOBIZ·기술혁신) 기업은 2만3585개사, 경영혁신(MAINBIZ·메인비즈) 기업은 2만7201개사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혁신대전'에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선포식을 갖고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출 1조 달러 클럽'이라고 하는 일본도 가보지 못한 역사적 실적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4만 달러 진입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법인 파산이 역대 최대에 이르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작년보다 20% 증가하는 등 일부 업종, 일부 기업 외에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출 1조 등)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구조적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결과물들은 중소기업인이 그간 흘려온 피와 땀, 눈물의 결과일 것인데 그 과실이 중소기업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더 나은 답을 하기위해선 지금보다 더 치열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혁신대전이 충청권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행사 주제는 '혁신의 큰물결, 국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열다'(Next W.A.V.E of Innovation)를 테마로 혁신주제관, 제조AI페스타, K-INNO SHOW, 지역혁신관 등 4개의 테마관에 133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전시부스를 만들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AI+ 대전환 상생협약식', '중소기업 혁신네트워크 포럼', 'R&D 우수성과 상생협력 성과공유회', '스마트제조 IR 투자설명회', '충북기업인의 날' 등 2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신용한 충북도지사, 송재봉 국회의원, 중소기업인 및 관계자 등 800여 명이 함께했다.

유공자 포상식에선 ㈜해광 고 김재호 회장이 금탑산업훈장, ㈜신한씨에스 최용성 대표가 은탑산업훈장, ㈜고모텍 김진양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올해 8월 작고한 김 회장이 1987년 창업한 해광은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팹(FAB) 및 클린룸용 'AL Access Floor'를 자체 개발하는 등 국산화에 앞장섰다. 현재 해광의 관련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25%에 이를 정도로 독보적이다.

이들과 함께 올해 유공자 포상식에선 총 313명에게 포상이 돌아갔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혁신대전'을 지역중심으로 개최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를 알리고, 행사를 통해 지역기업이 기술개발(R&D), 투자, 글로벌진출 등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선도해야 한다"며 "중기부도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전기-엔비디아 협력 강화

기판·MLCC로 공급망 확대

삼성전기 세종·부산 사업장 확충에
추가 지원 검토… 2029년 양산 목표
패키지기판 이어 MLCC도 협력

삼성전기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지기판 공급 협력을 확대한다. 엔비디아는 삼성전기의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사는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 컴퓨팅 플랫폼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패키지기판 공급 및 생산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0월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전기의 세종·부산 사업장에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전용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기존 지원에 더해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이 이뤄질 경우 세종·부산 사업장의 생산 인프라 확충과 첨단 설비 도입에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9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세종·부산 사업장의 생산라인 운영 효율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차세대 GPU 및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용 패키지기판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네트워크 반도체에 사용되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를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고속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NV스위치'용 FC-BGA를 양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의 고성능화로 기판의 대면적·고다층화가 진행되면서 초미세 회로 구현과 휨 현상 억제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사는 패키지기판에 이어 MLCC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MLCC는 전자회로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의 고집적·고출력 AI 컴퓨팅 플랫폼에 필요한 고신뢰성 MLCC 공급 협력을 추진한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판 미세 가공 기술과 고신뢰성 MLCC 기술력을 결합해,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이 최고의 성능과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보라 쇼퀴스트 엔비디아 운영 총괄 수석부사장은 "AI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삼성전기와의 협력은 기존 기판 공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엔비디아의 현재 및 차세대 가속 컴퓨팅 플랫폼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르노코리아, 장기보증·한정판 SUV 혜택

필랑트·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에
최대 7년·14만㎞ 무상 보증 연장 제공

르노코리아가 최대 7년의 장기 보증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한정판 모델을 앞세워 신차 구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 혜택을 넓히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필랑트와 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 출고 고객에게 최대 7년·14만㎞의 무상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3년·6만㎞인 차체·일반부품과 5년·10만㎞인 엔진·동력전달 부품의 보증을 모두 최대 7년·14만㎞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증 연장은 정기적인 차량 관리와 연계된다. 신차 출고 후 매년 365일 이내에 한 차례 르노코리아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12가지 무상 점검과 유상 엔진오일 교환을 받으면 된다.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지만 보증 연장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다음 차주에게 혜택이 승계된다.



르노코리아 서비스 센터. /르노코리아

장기 보증과 함께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차별화한 한정판 모델도 선보였다. 그랑 콜레오스 '에뚜알 에디션'은 파리의 밤하늘 별빛에서 영감을 얻은 흰색 중심의 디자인으로 꾸몄다.

필랑트 '누아르 에디션'은 메탈릭 블랙 외장과 20인치 올 블랙 휠로 통일감을 살렸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등 250만원 상당의 사양을 기본으로 갖췄으며 1000대 한정으로 선보였다. /이승혁 기자 sh95@

여경협, 유망 펨테크 기업 美 진출 지원

7개사와 실리콘밸리서 '펨테크 IR'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국내 유망 펨테크(Fem-Tech) 기업과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자들을 연결해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여경협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펨테크 기업 7개사가 참여하는 '2026 드림챌린지 K-Startup : 펨테크 I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펨테크 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발굴·육성 중인 유망 펨테크 기업 25개사 가운데 일부가 미국 현지 IR에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기술력과 사업모델, 성장 가능성을 발표하고 현지 투자자들과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